

세계가 인정한 6년근 개성인삼

고려인삼의 원조 제4회 개성인삼축제

개성인삼농협(조합장 김인수)은 10월3일 오전11시 개성인삼농협 앞 주차장에서 제4회 개성인삼축제 개회식을 갖고 3일 동안 축제를 벌였다.

이날 개회식에는 김영우 국회의원, 서장원 포천시장을 비롯해 관계 각급 기관단체장이 참석해 올해 네 번째 맞는 개성인삼축제를 축하했다.

김영우 국회의원은 "병함에 포천의 특산품을 넣어 홍보해 나가고 있다"고 밝히고 "오늘 축제를 계기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개성인삼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개성인삼조합이 크게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인수 개성인삼조합장은 "1910년 개성시에 창립해 98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개성인삼조합은 현재 직원 150여명, 조합원 3천여명이 38도선 부근 천혜의 자연조건에서



개성인삼농협은 10월3일 오전11시 개성인삼농협 앞 주차장에서 제4회 개성인삼축제 개회식을 갖고 3일 동안 축제를 벌였다.

인삼을 재배함으로써 우수한 품질로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다"며 "년 350억원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어 농가소득증대는 물론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개성인삼조합이 개최하는 3일간의 축제를 통해 국민은 물론 세계인의 건강

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장원 포천시장은 "웰빙시대 친환경 농법과 선진기술 집약으로 맛과 건강을 위한 제품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개성인삼은 세계적인 명품으로 탁월한 효능을 인정받고 있다"며 "비록 어려운 경제여건이지만 이번 축제를 통해 6년근 개성인삼이 널리 알려져 큰 소득을 올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종근 포천시의회 부의장은 "이번 축제를 계기로 포천시가 개성인삼조합의 증가로서 그 명성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축제를 준비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회식에 이어 인삼요리대회 및 메계 체험, 축하공연 퍼레이드, 인삼 건강 왕 선발대회, 축하폭죽쇼 등의 행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좁은 주차장 공간을 활용에 행사를 치르다 보니 주차장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모처럼 연휴를 맞아 이곳을 찾은 관광객들의 불편을 사기도 해 주차장 공간이 확보된 종합운동장에서 행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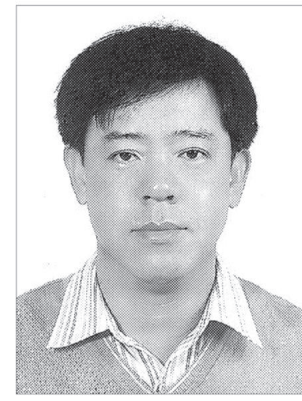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탐방 우리지역 사업소 178

휴 조경

조경(造景)에 매료되어 새로운 도전

3천여평 조경전시장 꾸며 사업 개시



대표 김영해

"조경이란 것을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업이 조경사업이다. 딱딱한 콘크리트와 철 구조물로 이루어진 도심에서 공원과 가로수가 없다면 우리사회는 삭막해질 것입니다. 조경은 삭막해지는 도시의 활력소가 되어 우리들에게 건강한 생명력을 불어넣기도 합니다."

포천시 신읍동 394-2번지에 위치한 휴조경 김영해 대표(47)는 조경사업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설의 대표적인 현장을 방문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개업 당시 3천여평 규모의 조경 전시장을 조성하고 입야 8천여 평을 확보해 우수 품종의 씨앗부터 묘목에서 대목까지 500여 종이 넘는 생산 및 판매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말했다.

중국산 품종을 배제하고 국산 우수품종을 엄선하여 묘목에서 중목, 대목까지 재배할 수 있는 생산시스템은 공사비가 절감으로 이어져 개업 시작부터 묘목 주문과 조경공사 계약이 끊이지 않았던 휴조경은 얼마 전 고속도로 조경공사를 수주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또한, 중장비를 보유해 신속하고 철저한 시공과 완벽한 A/S로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으며 신뢰를 쌓아오고 있다.

김 대표는 무슨 일이든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미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으로 내년 3월에는 조경종합면허를 취득해 경기북부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시켜 조경 계획에서부터 설계, 시공에 이르기까지 조경에 대한 모든 것을 윈스톱으로 제공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오늘날 조경은 단순히 나무와 돌덩어리로 정원을 꾸미는 것이 아니다. 조경은 아름답고 유용하게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문적, 과학적 지식을 응용하여 토지를 계획, 설계, 관리하는 예술이다.

조경 계획부터 설계, 시공까지 경기북부 최고의 기업으로 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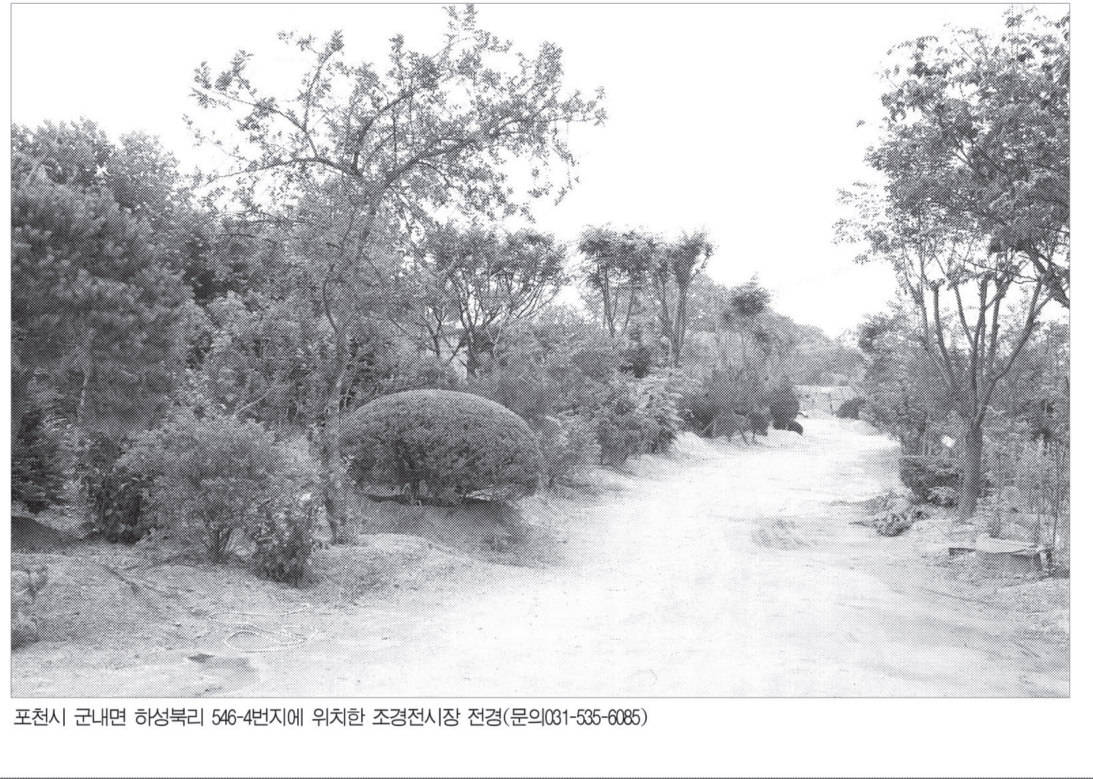
부동산학과를 졸업하고 20여 년 동안 부동산업에 종사하던 김 대표가 업종을 변경한 이유는 "자신이 보람 있다고 생각한 일에 정열을 쏟으며 살아가는 것이 멋있게 사는 법이라 생각한다. 그동안 부동산업을 하면서도 조경업에 매료되어 틈틈이 공부를 한 결과 자격증 취득과 동시에 2008년2월 개업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국내의 골프장을 비롯한 조경시

그런 의미에서 조경의 역사는 곧 인류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다.

자연환경과 인공물이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뤄 우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조경업에서 남다른 열정을 갖고 있는 김 대표가 농업대학에서 우수종자 연구개발 등에 끊임없는 연구와 투자를 계속하고 있어 앞으로 포천 관내 조경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성구 기자 cho2182@paran.com



포천시 군내면 하성북리 546-4번지에 위치한 조경전시장 전경(문의031-536-6086)

생산·제조·유통마케팅 하나로 고부가가치 창출

효림농산영농조합법인, 제조공장 신축하고 개업식 가져

효림농산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최재운)은 10월3일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에 사무실을 열고 생산·제조·유통마케팅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가기로 했다.

8명의 생산농가 대표들이 하나가 되어 구성된 효림농산영농조합법인은 제품생산 공정을 갖춘 공장을 신축하고 이날 창업식을 갖고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다.

이 법인은 조합원들이 생산한 인삼을 원료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데도 심혈을 기울이기로 했

다. 그동안 개발이 안된 뿌리와 지상부를 활용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최재운 대표이사도 개성인삼조합에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개성인삼조합에서 소화하지 못하는 물량을 받아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최 대표이사는 재배방식도 새롭게 바꾸기로 하고 현재 300평을 시험재배에 들어가 성공하면 조합원이 소유한 5만여평의 면적에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효림농산영농조합법인 개업식에 참석해 법인의 무궁발전을 위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2년전에 법인을 구성하고 6여억 원을 경기도와 포천시에서 지원받아 600여평의 부지에 178평 규모의 공장을 신축했다. 이 공장에서 연간 150톤을 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갔다.

최재운 대표이사는 "갈수록 어

려워지는 농촌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차별화된 전략 뿐이라며 새로운 생산방식은 물론 새로운 제품개발에 박차를 가해 조합원 1인당 연간 1억원이상 매출이 가능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행복설계 ③

돈 마술사 되기-3

어느덧 10월의 중반부를 접어들어서 가을 풍경이 멋진 포천의 축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결실을 맺는 계절이 왔으니 우리도 일년을 되짚어보고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목표에 대한 확신을 갖고 실천하는데 있어 방법을 알려드린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는 중요한 일은 남보다 하는 겁니다. 하루에 10분 이상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10분은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10분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늘 똑같은 모습인 겁니다. 사람들은 항상 상황을 바꾸고 싶어하지요. 그리고 결국은 자신부터 변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10분은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에 필요한 것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오늘부터 성공일기를 쓰고 그 내용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도록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모든 일이 잘될 때에도 꼭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은 계속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는 시간과 규칙이 필요하지요. 성공 일기를 쓰는 시간도 미리 정하는 게 좋습니다.

혹시 72시간의 법칙이란 걸 아시나요? 뭔가를 계획했다면 72시간내에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원하는 것을 성공일기에 적고 그것을 생각하며 당장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저와 함께 해보지 않으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일이란 웬지 불편하고 힘든 것이어야 한다고 생

각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을 할때 제대로 성공할 수 있는 법입니다.

돈에 관심있는 사람은 흥미진진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 정말 근사하고 흥미로운 사람들을 알게된다는 것입니다.

빛이 있는 분들에게 TIP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네 가지만 실천하면 됩니다.

첫째, 빛이 있는 사람은 신용카드를 모두 없애야 합니다. 카드를 사용하면 돈을 더 많이 쓰게 되기 때문입니다. 현금으로 지불해야 할 때도 카드를 쓰거든요.

두 번째는 신용카드로 쓴 금액은 되도록 조금씩 갚으라는 겁니다. 할부 기간을 길게해서 한 달에 들어가는 할부금을 적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번에 지불해야 할 금액이 많을수록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어요. 세 번째는 생활비 이외에 소비에 대한 조연입니다. 빛이 있는 사람은 50-50법칙을 따라야해요. 그건 생활에 필요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의 절반은 저축하고 절반은 빛 갚는데 쓰라는 거지요. 한가지 더 소개하기 위해 진 빛은 모조리 어리석은 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넷째는 '정말 꼭 필요한 것인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재미있는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며 감기 조심하세요.



박미라 금호생명 포천지점 비전센터실장 031-536-1473

사제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도 세금을 내지 않는 방법이 있다

개인으로 중소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강성실 씨는 사업규모가 커져서 대외신인도와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법인으로 전환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 법인전환시 세금문제 :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개인에서 사용하던 부동산이나 기계장치 등을 법인 명의로 이전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내야 하는 걸까?

■ 법인전환 방법 :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에는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 하는 방법과 사업을 양도양수 하는 방법이 있다.

■ 양도양수 방법 : 개인기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쌍방

간에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지만 하면 용이하게 전환할 수 있으므로 실무적으로도 양도양수 방법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 편이다.

■ 법인전환시 세금문제 :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개인에서 사용하던 부동산이나 기계장치 등을 법인 명의로 이전해야 한다. 그런데 개인과 법인은 실체가 다르므로 개인에서 법인으로 기계장치 등을 이전하게 되면 이에 대하여도 세금을 내야 한다. 즉, 부동산을 이전하는 데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기계장치를 이전하는 데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해당된다. 하지만 세법규정을 잘 이용하면 세금을 내지 않고 자산을 이전할 수가 있다.

■ 부가가치세 : 사업을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사업양도양수 방법'에 의하여 개인기업 자산을 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즉, 사업양도양수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 양도소득세 :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사업용 고정

자산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월과세를 한다.

■ 이월과세 :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를 양수한 법인이 나중에 당해 자산을 처분할 때 개인이 종전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법인에

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상당액을 법인제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 등록세 및 취득세 : 개인기업은 법인으로 전환시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지방세인 등록세와 취득세도 면제된다.

■ 관련법규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20조
자료제공 : 의정부세무서 재산세과 (031-870-4484~4487/4502~4507)

산업안전사고 예방

고소작업대 이동중 협착

■ 재해발생 개요 : 2007. 11. 20(화) 09:00경 물류센터 신축현장에서 전기공사 협력업체 소속 전공인 피재자(남, 40세)가 고소작업대(Sissor Lift)를 운전하여 물류창고 건물의 차량 진출입 통로를 통과하던 중, 차량 진출입 통로 상부 관널과 고소작업대의 상부 안전간간 사이에 흉부가 협착되어 쓰러져 인근 병원에 후송하였으나 사망한 재해임

■ 재해발생원인 : 고소작업대 사용작업 전 안전작업계획 수립 미흡

고소작업대 사용하는 작업 시에는 고소작업대 운행경로(통로크기, 바닥면 상태, 지장물 상태)등 현장 조건에 부합하도록 장비를 선정하고 현장 작업에 맞는 작업방법이 선정되도록 안전작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안전작업 계획 미수립

나, 고소작업대 사용 작업 전 안전교육 소홀 및 작업 시 관리감독 소홀 고소작업대 작업 전 작업자 및 신호수에게 해당 작업 구간의 특성에 따라 수립한 안전작업계획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작업 계획에 따라 작업이 진행되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하여야 하나, 관리감독 소홀

■ 동종재해 예방대책 : 고소작업대 사용 작업 전 세밀한 안전작업계획 수립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작업 시에는 고소작업대의 운행경로 등 현장 조건에 부합하도록 장비를 선정하고 현장 작업에 맞는 작업방법이 선정되도록 세밀한 안전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고소작업대 사용 작업 전 안전교육 및 작업 시 관리감독 철저

고소작업대 작업 전 작업자 및 신호수에게 해당 작업구간의 특성에 따라 수립한 안전작업계획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작업 계획에 따라 작업이 진행되도록 관리감독 철저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경기북부지회 (031-826-6091)

국민연금 Q&A

연금보험료 미납에 따른 장애연금 지급제한 판단시기 변경(초진일)

■ 개정내용 : 장애연금의 경우 종전에는 연금보험료 미납에 따른 장애연금 지급제한 판단시기를 지급 사유 발생일로 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로 함. ※ 적용대상 : 법 시행일 이후 초진일이 있는 건) ※ 유족연금의 미납에 따른 지급제한 판단 시기는 종전과 같이 지급사유발생일(사망일)임.

■ Q&A : 고객:교통사고가 나서 최후순상으로 장애연금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담:국민연금 가입 중에 사고가 났을 경우 장애연금을 청구하시면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합니다. 고객:그런데 최근 회사가 어려워져 연금을 못 내고 있다고 들었는데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상담:초진일을 기준으로 납부해야할 보험료의 2/3이상 납부가 되어있어야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진일이 언제인가?

고객:2007년 9월 25일입니다. 상담:고객님의 경우 초진일인 9월 25일을 기준으로 보면 20개월 가입에 15개월 납부가 되어 있으시고 초진일이 법 시행일 이후이므로 미납으로 인한 장애연금의 지급제한 대상은 아니십니다. 따라서 장애연금을 청구하시면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관리공단 포천지사 031-544-8700